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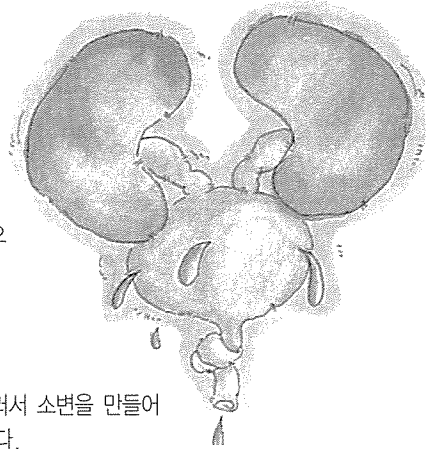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 신장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 유소견 현황(1999년 2월 중)

암 검진인원	신장암 · 신장질환 유소견자(200명)	신장암 확진자(2명)	
7,295명	서울	100명	
	부산	6명	
	대구	11명	
	강원	25명	1명
	대전충남	56명	
	전북	1명	1명
	경북	1명	

신장암 발견 사례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에 거주하는 정○○씨(남),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종합건강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암으로 판정 받은 후 종합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이○○씨(여·64세)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에서 신장질환·초음파 검진 등을 통해 신장암을 발견하고 현재 종합병원에서 재검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며, 협회 종합검진 중 우연히 암을 발견했다.



신장암이란

신장이란 우리 몸의 양쪽 뒤쪽에 있는 장기로,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배설기관인 신장에 생기는 암이 신장암이다.

신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신장암 중 대표적인 것이 신세포암인데,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환경공해·직업·음식·호르몬·염색체 이상·암 유전자·바이러스·중금속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흡연은 신세포암과 연관된 위험인자이며 흡연자에서 2배 이상의 발생 위험이 있다.

증상으로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옆구리·허리 등에 통증이 느껴지며, 아랫배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특히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이미 말기 상태일 가능성이 많으며, 혈뇨의 경우도 나오다 안나오다 할 수 있으므로 일단 혈뇨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혈뇨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유의할 만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변검사를 비롯한 각종 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도움이 된다.

신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건강진단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혈뇨, 옆구리·허리 통증, 허복부 종괴, 피로감 등이 동반된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비롯한 각종 건강검사를 받는 것이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도움이 된다.